

전조등 끈 스텔스 차량·전동휠 ‘도로 위 공포’

차로 변경 때 감지 안돼 ‘깜’...역주행에 신호 위반 일수 광주 올해 208건 적발...한밤 운전자·보행자 생명 위협

#1. 광주시 북구에 사는 박모(32)씨는 지난 27일 밤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려는 찰나 전동휠이 옆을 지나친 것이다. 박씨는 경적을 수 차례나 울렸지만,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전동휠 운전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박씨는 “어두운 밤길에 옷마저 검정적 패딩을 입고-, 전동휠이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힐 뻔 했다”고 말했다.

#2. 택시기사 김모(58)씨는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정색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했다. 검정 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었다. 김씨는 “요즘 야간에 전조등을 안 켜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이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경우도 많아 ‘도로 위 조폭’으로 불린다. 단속 좀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신호위반과 역주행을 일삼는 ‘전동휠’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급증, 야간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9일 광주 운수업체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야간에 전동휠을 타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 롱패딩 등을 입고 전동휠을 운행하는 대리운전기사가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 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동휠 운전자들이 작은 크기와 기동성 등을 앞세워 역주행과 신호위반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일부 대리운전기사는 야간시간대에 전조등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 야광 조끼라도 입고 운행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야간 운전자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인 ‘스텔스’ 차량도 야간사고 유발자로 꼽힌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따른 단속 건수는 2016년 214건, 2017년 55건, 2018년 27건, 올 9월 기준 202건으로 집계됐다. 운행 중인 스텔스 차량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스텔스 차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가로등이나 도로변 건물 불빛 때문에 전조등을 켜고 있

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서치를 호소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들이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 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운전자들은 스티어링 때문에 일부러 어두운 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거나, 연료비 절감과 헤드라이트 수명 연장 등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된 자동차로 100km(시속 60km) 주행시 연료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연비 소비량은 모든 것을 끈 채 달릴 때는 4.650ℓ, 전조등을 켜고 주행할 경우 4.716ℓ로 측정됐다. 휘발유 값을 ℓ당 1550원으로 계산해 보면 전조등을 켜고 1시간 주행시 102.3원의 연

료가 추가로 소모되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기엔 너무 미미한 연료 소모량이다.

자동차 전조등 역시 사실상 반영구적이어서, 전조등을 끄고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동차 전문가의 조언이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의 한 관계자는 “요즘 LED 헤드라이트는 반영구적이며, 과거 차량 헤드라이트에 장착된 할로겐도 폐차시까지 교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과장은 “광주는 타지역에 비해 방화지시등이나 전조등 등을 잘 켜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감소한다. 한국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아 어두운 날은 물론이고 365일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축 아파트 일조권 침해” 주민들 손해소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일조권 등을 침해 당한 주민들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A씨 등 17명이 광주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업조합 아파트 신축 이후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감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조합 아파트는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남쪽 정면에 들어섰으며, 두 아파트 사이 간격 증가 좁은 폭은 50.1m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16세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조합 아파트 신축 이후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었다”면서 “A씨 등은 조합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다만 “좁은 국토와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토지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도 곤란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하천에 빠진 승용차서 유골 발견

1998년 실종된 듯...국과수에 유전자 감식 의뢰

나주의 하천에 잠긴 승용차 안에서 사람 유골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께 나주시 지석천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붕 일부를 드러

낸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유골 7점을 수습했다. 승용차 주인은 1998년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뼈조각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자동차전용도로서 자전거 끌고 가다 교통사고 사망

자동차전용도로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행인이 군 교도들이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29일 장성경찰과 장성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50분쯤 장성군 삼서면 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A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뒤따르던 승용차에 또 다시 치여 온몸을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낸 2대의 승용차에는 부대 인근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던 육군 소속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헌병대로 넘겼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블럭쌓기 '집중' 2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 어린이문화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지식과 문명관'에서 블럭쌓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세월호 유족 숨진 채 발견

세월호참사 단원과 희생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은 “세월호참사 단원과 희생학생의 아버지 A씨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주차된 화물차들 사이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확인하려 갔다가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취지가 담긴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학교 옆 도로에서 흥기 휘두른 40대 체포

나주의 한 중학교 바로 옆 주택가 도로에서 흥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45분께 나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B(44)씨의 배를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현장은 인근 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택가 도로였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술 취한 직장 동료 성관계 갖게한 뒤 돈 뜯은 일당 징역형

술 취한 직장 동료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폭을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조폭과 여성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22일 새벽 B씨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37)씨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조폭을 동원해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C씨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미리 섭외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게 합석했으며, 이후 술에 취한 C씨와 여성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이 여성이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았고, 진단서를 넘겨받은 조폭과 여성 등 3명은 C씨를 불러내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성폭행은 죄하 징역 2년이다.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C씨는 결국 이들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7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와 B씨는 이듬해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C씨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k

휴대전화 훑치고 오리발...신고하자 되레 협박한 대학생

○...휴대폰을 훑치고 오리발 내민 것도 모자라 신고자를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절장형.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에 지인 B(여·21)씨가 거주하는 광주시 서구 한 원룸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시가 100만원 상

당의 휴대전화를 훑었는데, B씨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자 전화를 걸어 “나를 신고했느냐?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는 것.

○...경찰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지난 24일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혐의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